박춘무(朴春茂)

생몰년 미상. 조선중기 문신·의병장
본관 순천(順天), 호 화천당(花遷堂)

▣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키고 조헌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는 데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청주시에서는 청주성탈환 재현 행사 및 추모제를 통해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으며, 2011년에는 서거 400주년을 맞는 바,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박춘무 영정>

찰방(察訪)을 거쳐,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창의사(倡義使)가 되어 의병을 일으키고 조헌(趙憲)과 함께 청주성탈환에 큰 활약을 하였다. 청주성전투 당시 조헌이 좌의대장(左義大將)으로 서문의 공격을 담당하였고, 박춘무는 우의대장(右義大將)으로 남문의 공격을 지휘하였다.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쇄미록』에 따르면, 박춘무는 7월 초에 청주 복대동(福臺洞)에서 700여명의 병력으로 기의(起義)하였다. 복대동에서 기의한 박춘무는 이미 왜적과 대치하고 있던 영규의 승병 및 관군, 뒤이어 합류한 조헌의 의병군과 빙고현(氷庫峴, 현재의 모충고개)에서 합류하였다. 청주성은 공방전 3일 만에, 점령된 지 3개월 만에 수복되었다. 이후 패퇴하는 적을 뒤쫓아 진천에서 또 한 차례의 승리를 거두었다.

침구술(鍼灸術)이 뛰어나 의관(醫官)으로도 활약하였으며, 뒤에는 지방관으로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임천군수(林川郡守)·인천부사(仁川府使)를 역임하고, 이듬해는 부평부사(富平府使) 등을 지냈다. 참찬(參贊)에 추증되고, 시호는 민양(愍襄)이다.

당시 기록과 후대에 관련 사적을 모은 『화천당집』이 있다.

<박춘무 전장기적비>

김생(金生)

711(성덕왕 10)~미상. 통일신라시대 서예가
본관 미상.

▣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고려시대 문인들에 의하여 해동제일(海東第一)의 서예가로 평가 받았으며 원나라의 조맹부(趙孟頫)가 "창림사비는 신라 김생의 글씨로 자획에 전형(典型)이 깊어 당인(唐人)의 명각(明刻)이라도 이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품평을 한 바 있을 정도의 당대 최고의 서예가로, 2011년 탄생 1300주년을 맞는 바,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김생 영정>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 김생조에 의하면, "김생은 부모가 한미(寒微)하여 가계를 알 수 없다.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는데 나이 80이 넘도록 글씨에 몰두하여 예서·행서·초서가 모두 입신(入神)의 경지였다. 숙종 때 송나라에 사신으로 간 홍관(洪灌)이 한림대조(翰林待詔) 양구(楊球)와 이혁(李革)에게 김생의 행서와 초서 한 폭을 내보이자 왕희지(王羲之)의 글씨라고 하며 놀라워하였다."고 한다.

그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동국여지승람』 충주목(忠州牧) 불우조(佛宇條) 김생사항(金生寺項)에 "김생이 두타행(頭陀行)을 닦으며 이곳에 머물렀기에 김생사라 이름 하였다."는 기록과 그의 글씨로 전해지는 작품들이 모두 사찰 또는 불교와 관련된 점으로 보아 '호불불취(好佛不娶)'하였다는 그의 생을 짐작할 뿐이다.

<충주 김생사지>, 충청북도 기념물 제114호.

그는 특히 고려시대 문인들에 의하여 해동제일(海東第一)의 서예가로 평가받아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에서는 그를 신품제일(神品第一)로 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미 그의 진적이 귀해져 이광사(李匡師)의 『원교서결 圓嶠書訣』에서 그의 진적은 절무하다고 할 정도였다.

그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필적으로 현재 경복궁에 있는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가 있다.

이 비의 비문 글씨는 고려 954년(광종 5)에 승려 단목(端目)이 김생의 행서를 집자(集字)한 것으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유행한 왕희지·구양수 류의 단정하고 미려한 글씨와 달리 활동적인 운필로 서가(書家)의 개성을 잘 표출시키고 있다.

또한, 짜임새나 획의 처리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틀에 박힌 글씨에서 벗어나 운치를 살리고 있다. 그의 유일한 서첩으로 『전유암산가서 田遊巖山家序』가 있으며, 『해동명적 海東名蹟』, 『대동서법 大東書法』에 몇 점이 실려 있다.

특히, 「여산폭포시 廬山瀑布詩」는 자유분방하면서 힘이 넘치는 필적이다. 이밖에 〈창림사비 昌林寺碑〉가 있는데 현재 원비는 물론 탁본조차 전하지 않는다.

이공기(李公沂)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 의원. 제천출생
본관 한산(韓山).

▣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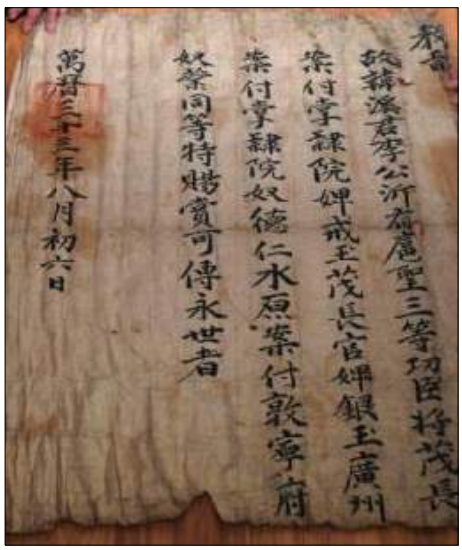
선조 대의 내의(內醫)로서 침구(針灸)에 능하였고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당시 임금을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 3등인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 되었다. 제천시에서는 2011년 이공기 유적지 정비사업, 모사본 제작, 학술회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이공기 영정>

선조 대의 내의(內醫)로서 특히 침구(針灸)에 능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관(大官)의 치료에 공이 많았다. 1586년(선조 19) 왕비 의 인후증(咽喉症)을 치료한 공으로 내의로서 동반(東班)의 직을 제수 받았고, 이듬해 허준(許浚)과 함께 임금의 병을 치료한 공으로 상을 받았다.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선조 26)에는 침술에 능했기 때문에 원병으로 온 명나라 부상병의 치료를 담당하였으며, 1595년에는 호군(護軍)으로서 동궁(東宮)을 배종(陪從)한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의주 파천 시에 임금을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 3등인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 되었다. 허준(許浚)과 함께 침구로 여러 차례 선조의 병을 치료하여 명성이 높았다.



<옥축(玉軸)>

옥축은 왕이 공신에게 내린 두루마리를 칭하며, 선조가 1604년 임진왜란 시 자신을 호위한 공신에게 내린 별교서이다. 당대 명필 한석봉이 대나무 실종이에 직접 쓴 글이며, 이공기를 비롯해 호성공신에 봉한 86명의 이름이 수록돼 있다.

남구만(南九萬)

1629년(인조 7)~1711년(숙종 37). 조선 중기 문신
본관 의령(宜寧). 자 운로(雲路). 호 약천(藥泉)·미재(美齋)

▣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684년에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 1687년 영의정에 오르는 등 국정전반에 걸쳐 경륜을 폈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 뛰어나 책문(册文)·반교문(頒敎文)·묘지명 등을 많이 썼다.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청구영언』에 전해진다. 2011년 서거 300주년을 맞는 바,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남구만 영정>

개국공신 재(在)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현령 일성(一星)이다.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 수학, 1651년(효종 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56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가주서·전적·사서·문학을 거쳐 이듬해 정언이 되었다.

1659년 홍문록에 오르고 바로 교리에 임명되었다. 이조정랑에 이어 집의·응교·사인·승지·대사간·이조참의·대사성을 거쳐, 1668년 안변부사·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62년에는 영남에 어사로 나가 진휼사업을 벌였고, 1674년 함경도관찰사로서 유학(儒學)을 진흥시키고 변경수비를 튼튼히 하였다. 숙종 초 대사성·형조판서를 거쳐 1679년(숙종 5) 좌윤이 되었으며, 같은 해 윤휴(尹鑴)·허견(許堅) 등의 방자함을 탄핵하다가 남해(南海)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도승지·부제학·대사간 등을 역임하였으며, 1680년과 1683년 두 차례 대제학에 올랐다. 병조판서가 되어 폐한 사군(四郡)을 다시 설치할 것을 주장하여 무창(茂昌)·자성(慈城) 2군을 설치했으며, 군정(軍政)의 어지러움을 많이 개선하였다.

1684년에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 1687년 영의정에 올랐다. 이즈음 송시열(宋時烈)의 훈척비호를 공격하는 소장파를 주도하여 소론(少論)의 영수로 지목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자 강릉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으며,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다시 영의정에 기용되고, 1696년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1701년 희빈 장씨(禧嬪張氏)의 처벌에 대하여 중형을 주장하는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爀) 등 노론의 주장에 맞서 경형(輕刑)을 주장하다가 숙종이 희빈 장씨의 사사를 결정하자 사직, 낙향하였다.

그 뒤 부처(付處)·파직 등 파란을 겪다가 다시 서용되었으나, 1707년 관직에서 물러나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가 기로소에 들어갔다. 당시 정치운영의 중심인물로서 정치·경제·형정·군정·인재등용·의례(儀禮) 등 국정전반에 걸쳐 경륜을 폈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 뛰어나 책문(册文)·반교문(頒敎文)·묘지명 등을 많이 썼다.

또한, 국내외 기행문과 우리 역사에 대한 고증도 남기고 있다. 서화에도 뛰어났으며,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청구영언』에 전한다. 숙종 묘정(廟庭)에 배향, 강릉의 신석서원(申石書院), 종성(鐘城)의 종산서원(鐘山書院), 무산(茂山)의 향사(鄕祠) 등에 제향되었으며,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송천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저서로 『약천집』, 『주역참동계주 周易參同契註』가 전한다. 글씨로는 좌상남지비(左相南智碑), 찬성장현광비(贊成張顯光碑), 개심사(開心寺)·양화루(兩花樓)·영송루(迎送樓)의 액자를 남겼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김유신(金庾信)

595(진평왕 17)~673(문무왕 13). 무인. 진천 출생
본관 김해(金海)

▣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신라 통일기의 무인으로 삼국통일의 주역이다. 진천 출생으로 태령산에는 태실이 있다. 탄생지와 태실은 국가 사적(제414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의 영정이 봉안된 길상사에서는 매년 제향을 지내고 있는 바,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김유신 영정>

증조부는 532년(법흥왕 19)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야의 구해왕이며, 할아버지는 무력(武力), 아버지는 서현(舒玄)이다. 어머니는 만명부인(萬明夫人)이다. 어머니의 증조부는 지증왕, 할아버지는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 아버지는 숙흘종(肅訖宗)이다.

김유신은 629년에 전공을 세운다. 642년 김춘추가 고구려를 향해 떠날 때에는 압량주(押梁州: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의 군주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신라에서 군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부터의 활약이 뚜렷이 나타난다. 644년에는 소판(蘇判)이 되었고, 그해 9월에 상장군으로 백제 원정군의 최고 지휘관이 되어 전략상의 요충인 가혜성(加兮城)·성열성(省熱城)·동화성(同火城) 등 7개 성을 점령하였다.

647년에는 귀족 내부의 반란 진압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647년(진덕여왕 1)과 648년의 전투는 압량주군주로서 그 일대의 전투를 지휘한 형태였으나, 진덕여왕 3년의 전투에서는 백제의 대대적인 침입을 막기 위하여 중앙군으로 편성된 군단을 지휘하였다.

태종무열왕 즉위년 10월에 태종무열왕의 셋째 딸과 혼인하였다. 660년 귀족회의의 수뇌인 상대등이 된 후 삼국통일 전쟁과정에서 신라를 이끄는 중추적 구실을 하게 되고, 같은 해 신라군을 이끌고 당나라 군대와 함께 백제를 멸하였다. 661년(문무왕 1) 6월에 고구려를 원정하였고, 663년에는 백제부흥을 꾀한 백제유민과 그들을 지원한 왜(倭)의 연합을 격파하였으며, 664년에 또다시 백제유민이 사비성에서 봉기하자 은밀한 계책을 일러주어 평정하였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에 신라군의 총사령관이라 할 대총관(大摠管)이 되었고, 고구려를 평정한 직후에는 다시 한 등급을 높인 '태대서발한(太大舒發翰)'에 제수되었다.

673년(문무왕 13) 김유신이 죽자 왕은 성대한 의장을 갖추어 금산원(金山原: 지금의 경주시 송화산 기슭으로 추측됨)에 장사 지내게 하고,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게 했다 한다. 뒤에 흥덕왕(삼국유사에는 경명왕 때라 함)은 그를 흥무대왕(興武大王)으로 추봉하였다.

<김유신 태실>

김홍도(金弘道)

1745년(영조 21)~미상. 조선 후기 화가

본관 김해(金海). 자 사능(士能). 호 단원(檀園)·단구(丹邱)·서호(西湖)·고면거사(高眠居士)·취화사(醉畵士)·첩취옹(輒醉翁)

▣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김홍도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산수화, 풍속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중인 출신으로 1791년 연풍현감에 제수되어 단양 지역의 경승을 그림으로 남겼다. 매년 단원 김홍도 전국 사생대회를 개최하는 등 선양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2011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포의풍류도>
자화상적 이미지가 표현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당대의 감식자이며 문인화가인 강세황(姜世晃)의 천거로 도화서화원(圖畵署畵員)이 되며, 29세인 1773년에는 영조의 어진(御眞)과 왕세자(뒤의 정조)의 초상을 그리고, 이듬해 감목관(監牧官)의 직책을 받아 사포서(司圃署)에서 근무하였다.

1781년(정조 5)에는 정조의 어진 익선관본(翼善冠本)을 그릴 때 동참화사(同參畵師)로 활약하였으며, 찰방(察訪)을 제수 받았다. 이 무렵부터 명나라 문인화가 이유방(李流芳)의 호를 따라 '단원'이라 자호하였다. 1788년에는 왕명으로 금강산 등 영동일대를 기행하며 그곳의 명승지를 그려 바쳤다. 그리고 1791년 정조의 어진 원유관본(遠遊冠本)을 그릴 때도 참여하였으며, 그 공으로 충청도 연풍현감에 임명되어 1795년까지 봉직하였다. 현감 퇴임 후 만년에는 병고와 가난이 겹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여생을 마쳤다.

비교적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 편이며, 50세를 전후로 화풍상의 변화를 보인다. 산수화의 경우 50세 이전인 1778년 작 「서원아집육곡병 西園雅集六曲屛」(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말해주듯이, 주로 화보(畵譜)에 의존한 중국적인 정형산수(定型山水)에 세필로 다루어지는 북종원체화(北宗院體畵)적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연풍현감에서 해임된 50세 이후로 한국적 정서가 어려 있는 실경을 소재로 하는 진경산수(眞景山水)를 즐겨 그리면서, '단원법'이라 불리는 보다 세련되고 개성이 강한 독창적 화풍을 이룩하였다.

그를 회화사적으로 보다 돋보이게 한 것은 그가 후기에 많이 그렸던 풍속화이다.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상을 간략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원형구도 위에 풍부한 해학적 감정과 더불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경산수 속에 풍속과 인물·동물·사물 등을 곳곳에 가미하여 한국적 서정과 정취가 짙게 밴 일상사의 점경(點景)으로 승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는 산수뿐만 아니라 도석인물화에서도 자신만의 특이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연풍동헌>